

AH (조류독감)은 차단방역이 최선입니다



시란 무엇인가?

정의

- AH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, 오리, 칠면조, 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.
-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AH로 크게 구분된다.
 - 이중에서 고병원성 AH는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, 발생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.
- 고병원성 AH에 감염된 닭이나 칠면조는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%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지만 오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.
- AH 바이러스는 혈청아형(subtype)이 매우 많고 변이가 쉽게 일어나며,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다들에게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가축전염병 중의 하나이다.

원인체 및 잠복기

- AH 바이러스로서 혈청형은 H형(16종)과 N형(9종)으로 구분되고 H5N2, H9N2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.
- 바이러스 생존력은 4℃ 일때 분뇨에서는 최소 35일간, 계사 오염 면지에서는 2주간 생존한다.
- 잠복기는 수시간에서 2~3일이며 OIE에서는 최장 잠복기를 21일로 규정하고 있다.

임상증상

- 닭 : 일반적으로 사료섭취량 감소, 비늘의 청색증, 머리와 안면의 부종, 80% 이상 급격한 폐사, 산란을 저하 등을 나타낸다.
- 오리 : 알을 생산하는 종오리는 급격한 산란을 저하,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고 육용오리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, 새끼오리는 일부 폐사한다.

국내 전파 경로

- 감염된 야생조류와 직접 접촉할 경우
- 감염된 야생조류 분변에 오염된 사람, 차량, 사료, 사양관리 기구 등에 의해 전파된다.
 - 분변 1g에 닭 싼만~백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.

AH 예방요령

-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였습니까?
- 폐사하는 닭(오리)가 있습니까?
- 죽은 닭이 사료통에 머리를 빼고 죽었나요?
- 산란율이 감소하였습니까?
- 설사증상이 보입니까?
- 입을 벌리고 숨을 쉬나요?(개구호흡)
- 몸을 움츠리거나 활력이 떨어진 닭(오리)가 있습니까?
 - 의심축 발견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☎ 1588-4060 / 1588-9060

AH 발생상황별 「위기단계」 내용

- 「관심」단계 -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H 발생시(평시)
- 「주의」단계 - 의사환축 발생시, 국내 발생시, 철새 이동시기(10~5월)
- 「경계」단계 - 인접 또는 타지역 발생시
- 「심각」단계 - 여러 지역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
- 「긴정 및 종식」단계
 - 진정단계: 일정기간 동안 발생이 없거나 발생지역 감소,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 등 상황이 진정되는 단계
 - 종식단계: 모든 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AH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단계

소독실시 요령

- 농장출입 차량 통제 및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해야한다.
 -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소독실시 기록부 보관
- 축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 설치 및 소독액은 2~3일에 한번 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해 준다.
 - 축사간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별 전용 장화(색깔 구분)를 사용한다.
- 귀, 야생조류 등 축사 내 출입 차단 및 정기적인 구서 작업을 한다.
- 야생조류 접근 방지를 위해 사료빈 주변 사료를 즉시 제거하고 소독한다.
-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시·군에 신고하고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한다.

축산차량 방역관리 요령

운행전 확인 사항

- 차량무선인식장치(GPS) 장착 및 작동여부를 확인한다.
- 차량내 방역물품을 점검한다.
 - 휴대용 소독기나 소독약의 충전 상태, 비닐장화, 방역복, 마스크 점검 등
- 농가 방문 전 방문농가에 대해 방문 날짜, 시간 등을 통보한다.

농장 또는 시설(도계·도입장) 방문시 조치사항

- 출차시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비치되어 있는 '소독실시대장'에 기록(1차소독)
- '거점소독 장소'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'소독필증'을 발급(2차소독)
- '농장(시설)에 설치된 소독설비'를 통해 소독 실시, 차량에서 내리는 경우 전용 의복(방역복)과 신발을 착용한 후 내부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(소독약) 등으로 충분히 소독한 후 하차(3차 소독)
- 대인소독기 통과 후 소독기록부 작성(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)
- 농장(시설) 내에서 가급적 종사자와 접촉하지 않고 농장에서 질병 발생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한다.
- 농장 출입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오염된 방역물품 및 1회용 방역물품은 비닐봉기에 밀봉처리 한 후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한다.
- 차량의 적재함에서 깃털, 분변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.

▶ 축산차량 등록제란 ?

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*차량무선인식장치(GPS단말기)를 장착하여 축산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, 관리 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*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·제거한 차량 운전자 (소유주)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

▶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이란 ?

가축·원유·알·동물약품·사료·조사료·가축분뇨·퇴비·왕겨·쌀겨·톱밥갈집을 운반하거나 진료·예방접종·인공수정·컨설팅·시료채취·방역·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입니다. 축산관계시설: 가축사육시설, 도축장 및 집유장, 식용란 수집판매업소, 사료공장, 가축시장, 가축검정기관, 종축장, 부화장, 비료공장, 가축분뇨 처리업체
*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시, 해당 차량 운전자(소유주)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.

▶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

「차량등록제 운영센터: 1544-3925」로 즉시 신고하시고 불가피하게 축산시설을 방문한 경우 출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

가금농장 AH 차단방역 수칙

- 농장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통제
-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 전·후 소독 실시
- 농장 출입 전·후 소독(특히 손, 신발) 및 환복
- 사료 및 주변 사료 즉시 제거, 주기적 소독 실시
- 귀, 야생조류 등 침입 방지용 헨스, 그물망 설치
- 축사 출입 전 환복,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설치,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
- 축사 내·외부 및 장비 등 철저히 소독

야생조류 우리 농장에 가까이 못오게 하세요

야생조류 차단방역 수칙이란? 야생조류에 의해 AH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방안입니다.

- 야생조류의 접근과 철새분과의 접촉을 차단하면 고병원성AH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가축주, 가족, 농장 종사자도 외출 후 귀가 시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.
- 철새 서식지나 도래지 주변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(특히 농장주변 하천·논·밭 등)
-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주변을 청소하여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합니다.
- 축사 주변의 야생조류 분변을 관찰하고, 발견 시 수거 소각하고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.

축산관계자가 해야 할 실천사항

산란계 AH 발생원인 분석에 따른 농가 주의 사항

- 인근 주민 등 불특정인의 농장 출입(계란 구입 등) 통제 철저히 AH를 예방합니다.
- 야생동물(철새, 텃새, 고양이, 설치류) 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, 축사 보완(그물망 등) 해야 합니다.
- 계분처리용 출입구(쪽문)에 발판소독조 운영 및 신발 소독을 해야 한다.
- 농장 마당의 사료잔류물, 철새분변 제거 및 청소·소독을 철저히 한다.
- 종사자(외국인 등) 축사출입 시 강화 교한 및 소독 여부를 확인 하세요.
- 식란판매 및 가금 도매 출하 차량·출입자 관리(방역복, 소독, 위험지 방문 등)를 철저히 한다.
- AH예방을 위해 백신접종(티푸스, ILT 등) 자체 및 접종자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한다.

AH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및 국내 경제적 손실 예방

- AH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,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으로 AH를 예방합니다.
- 소독 등 방역의무 미이행 시 AH 살처분 보상금의 최대 80% 삭감됩니다.
- AH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의 최대 80% 삭감, AH예방은 가정경제 파탄의 예방입니다.
- AH발생하면 가정 경제 파탄나고, 국가경제 거들너라! 미리미리 예방하자!
- 고병원성 AH, 차단방역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철저한 차단방역 및 농가 소독만이 AH 확산을 막는 길입니다.
- 정확하고 철저한 농장 소독 실시와 차단방역으로 AH를 예방합니다.
-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, 외부인·차량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니다.

축산관계시설 소독시 구체적인 행동요령

- 농장에 생석회를
 - 귀 등 출입차단을 위해 위험 또는 발생지역인 경우 농장 윗타리 둘레로 폭 2m 및 두께 약 2cm로 살포
 - 땅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를 1㎡당 300~400g을 살포
 - 최소 1주일 간격으로 반복 살포하되, 생석회가 굳어진 경우 1주일 이전이라도 견어내고 재살포, 비나 눈이 온 경우 다시 살포
- 축산시설 일반 소독요령 : 사료공장, 부화장, 계란집하장 등 출입차량
 - 작업장 출입 전 차량 바퀴 등에 대한 충분한 소독 실시
 - 윤전자에 대하여도 개인 소독기 사용 등을 통한 개인 소독 확인
- 도축장의 가금운반차량
 - 차량외부 유기물제거를 위해 고무호스 등을 이용하여 차량외부(바퀴, 훔발이 등) 세척 실시
 - 세척 후에는 차량 외부에 대해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전체 소독 실시
 - 차량 내부 윤전석 등 간이소독기 또는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 실시
 - 윤전자가 사용한 장화(특히 바닥)는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